

202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③	3	②	4	③	5	④
6	④	7	①	8	⑤	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⑤	14	②	15	①
16	④	17	④	18	①	19	③	20	②
21	①	22	⑤	23	⑤	24	④	25	④
26	②	27	②	28	①	29	③	30	⑤
31	③	32	①	33	④	34	②	35	⑤
36	②	37	①	38	④	39	③	40	③
41	④	42	⑤	43	③	44	⑤	45	⑤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발표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고려 시대 부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 제목을 언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청중에게 더위와 관련한 질문을 하여 부체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1문단 마지막에 발표 순서를 청중에게 제시하여 예측하며 든든하게 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부체를 가까이하자는 제안을 하고, 냉방병 예방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밝히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㉞은 맥락상 화려함을 강조한 옛 부체가 적절하다. 따라서 현대의 공예 부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㉞에는 기원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부체 관련 유물을 제시해야 한다.
 ② ㉞에는 동글부체와 접부체에 대한 자료로 두 가지 종류의 부체를 제시해야 한다.
 ④ ㉞에는 우리나라 부체가 지닌 예술미를 갖춘 추사 김정희의 글과 그림이 담긴 부체를 제시해야 한다.
 ⑤ ㉞에는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 부체, 펜시 부체를 제시해야 한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학생1은 부체의 재료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으며, 학생2는 부체와 관련된 단오의 풍습에 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오답풀이] ① 학생1은 전통 부체를 만드는 무형 문화재 관련 내용을 추가할 만한 내용으로 언급했지만, 학생2는 추가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학생1, 학생2 모두 자신의 태도를 반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④ 학생2는 부체와 관련한 풍습을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고 하였지만, 학생1은 의문점 자체를 떠올리지 않았다.
 ⑤ 학생1, 학생2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발화 의도 이해하기

㉞은 인간이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려는 노력인 '생태 통로'를 언급하여 인간이 다른 생명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상대의 발언과 상반된 사례를 들고 있다.

- [오답풀이] ① ㉞ 책을 쓰게 된 계기를 환경 단체에서 멸종 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힘써 온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
 ② ㉞ 반달가슴곰이 응답 채취용으로 사육된 것이 인간이 만든 끔찍한 일이라 슬펐다며 상대에 공감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㉞ 야생동물의 안전을 위해 생태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수달의 로드킬 사고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⑤ ㉞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발언 의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수립하기

책에 소개하지 못해 아쉬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질문은 (가)에 없다.

- [오답풀이] ① 학생1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2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2의 두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2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나)의 4문단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생태 통로 설치의 효과는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진행 중인 생태계 보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가)에서 작가가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멸종 위기종도 우리와 동등한 존재라고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야생동물 보호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가)에서 언급된 수달의 사고 내용과 함께 한 해 로드킬 사고의 절반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를 추가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의 3문단에서, (가)에서 알게 된 생태 통로 설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생태 통로의 설치와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언급하며 건의하고 있다.
 ⑤ (나)의 5문단에서, (가)에서 언급된 반달가슴곰과 저어새의 대조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로드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친구를 떠나 보낸 것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과 '슬프다'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 [오답풀이] ② '부끄럽다'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는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없다.
 ③ '등불'이라는 비유적 표현은 있으나,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는 없다.
 ④ 비유적 표현과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가 모두 없다.
 ⑤ '미어지다'라는 정서를 드러내는 어휘는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없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일라이트라는 제재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정의나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광물자원 등과 비교하지 않았을뿐더러 일라이트의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오답풀이] ① 1문단에 글쓰는 이는 평소 천연자원의 발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라이트라는 제재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② 2문단에 일라이트라는 명칭이 생긴 유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4문단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일라이트와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3문단에 일라이트의 활용 분야를 제시하여 그것의 효용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L'은 일라이트의 구체적인 효능을 소개하는 전문가 인터뷰이고, 'C'은 일라이트를 상품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의 사례를 소개하는 신문 기사이다. 따라서 일라이트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기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로 'C'은 적절하지만, 'L'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G'은 일라이트와 관련된 동양 고서의 기록으로 2문단 말미에 언급된 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이다.

- ② 'N'은 일라이트의 환경과 의료 분야의 효능을 보여 주는 것으로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③ 'D'은 일라이트 개발을 위한 기간 간 협력의 사례로 일라이트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상품 개발로 이어지는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④ 'H'과 'L'은 일라이트의 효능에 대한 것이므로 자료원으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마지막 문단의 앞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한 것이고, [A]는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과 느낀 것으로, 소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추가된 정보 대신 자신의 소감을 전하며 마무리할 것을 친구가 조언했다고 할 수 있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의문문의 특징과 유형 탐구하기

㉞은 의문사 '무엇'이 포함된 의문문으로, 맥락에 따라 설명 의문문으로도, 판정 의문문으로도 쓰일 수 있다. ㉞의 경우, 청자의 반응이 '아니'이므로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의문사 '무엇'도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풀이] ① ㉞은 대답 '응'으로 보아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② ㉞은 종결 어미 '-지'를 사용하여 청자도 자신처럼 아침을 못 먹었을 것이라고 믿는 바를 확인하기 위한 판정 의문문이다.
 ④ ㉞은 청자의 반응에 따라 의문문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⑤ ㉞은 의문사 '왜'가 가리키는 내용에 대하여 청자가 설명하는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설명 의문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 이해하기

<보기>의 [탐구 결과]에 따르면, ㄱ과 ㄴ은 판정 의문문, ㄷ과 ㄹ은 설명 의문문이다. 그리고 4문단에 의하면, ㄱ의 '가'와 ㄷ의 '고'는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이고, ㄴ의 '-니'와 ㄹ의 '-뇨'는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에는

‘아/어’ 계통의 보조사나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고, 설명 의문문에는 ‘오’ 계통의 보조사나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사례들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관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보조사나 종결 어미의 형태가 설명 의문문과 달랐다고 판단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팔뿔[관뿔]’은 받침 ‘ㅍ’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교체)가 일어나고, ‘뿔뿔[만뿔]’은 ‘ㅎ’과 뒤의 ‘ㄷ’이 ‘ㅌ’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애뜻한[애트탄]’은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교체)가 일어나고, 앞의 ‘ㄷ’과 뒤의 ‘ㅎ’이 ‘ㄷ’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오답풀이]** ① ‘낫설고[날썰고]’는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교체)가 일어나고, ‘ㄷ’ 뒤의 ‘ㅌ’이 ‘ㅌ’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② ‘놓더라[노타라]’는 ‘ㅎ’과 뒤의 ‘ㄷ’이 ‘ㄷ’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③ ‘맞는지[만는지]’는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는 평파열음화(교체)가 일어나고, ‘ㄷ’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가 일어난다.
 ④ ‘먹히는[머키는]’은 ‘ㄱ’과 뒤의 ‘ㅎ’이 ‘ㅋ’으로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14. [출제의도] 문장 부호 용법 파악하기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는 삽표를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체의어’의 뒤에 쓰는 예에 해당한다. ㉠의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에 해당하는 예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등이다.

15. [출제의도] 이중 피동 표현 파악하기

- ‘가려진’은 기본형 ‘가리다’에 ‘-어지다’만 붙은 것으로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이중 피동 표현의 예가 아니다.
[오답풀이] ② ‘쓰여진’은 기본형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담겨진’은 기본형 ‘담다’에 피동 접미사 ‘-기-’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열려진’은 기본형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보여진’은 기본형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16~20] 독서(인문)

<출전> 타인의 얼굴(제구성)

개관: 이 글은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을 다루고 있다. 레비나스는 ‘향유’의 주체성과 ‘환대’의 주체성이란 두 개념으로 주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갈 때 참다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타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본 기존의 철학과 달리 레비나스는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6.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 2문단에서, ‘타자성’은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 존재이고,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로 보고 있다.
 ② 4문단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보고 있다.
 ③ 3문단에서 향유는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라고 했다.
 ⑤ 3문단에서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인 자기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초월이라고 했으며(2문단), 타자를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5문단).

- [오답풀이]** ①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3문단).
 ② 타자는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2문단).
 ③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5문단).
 ⑤ 타자는 주체를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 갈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있다(5문단).

18.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 ④와 ①의 ‘놓이다’는 모두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 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②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가 사라지거나 풀리다.’를 의미한다.
 ③, ④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가 설치되다.’를 의미한다.
 ⑤ ‘무늬나 수가 새겨지다.’를 의미한다.

19. [출제의도] 다른 관점과 비교하기

<보기>는 나와 타자를 투쟁 관계에 있으며, 타자를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는 타자를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기존의 철학과 달리,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 [오답풀이]** ① <보기>와 ㉡ 모두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기고 있다.
 ② 타자와의 중재를 위해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보기>에 해당한다.
 ④ ㉡는 합의와 계약에 의해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환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보기>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 또한 타자를 환대할 때,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A는 타자를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므로, 자신의 자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를 환대하는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 [오답풀이]** ① A는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외국인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서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B는 외국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 주고 말하는 점에서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 책임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B는 외국인들을 환대하고 있으며, 이는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A는 자기성이 바탕이 된 향유의 주체성의 모습이, B는 타인의 문제를 책임지는 환대의 주체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1~25] 독서(사회)

<출전> 고발·고소장·내용증명·탄원서·진정서(제구성)

개관: 이 글은 특수 우편 제도인 내용증명의 특징과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계약 해지 등과 같은 의사 표시를 계약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증거의 기능, 상대방의 의무 이행 독촉 기능, 6개월 이내 법적 대응을 동반할 시 소멸시효 중단의 기능을 갖는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의 일정한 요소를 갖추어 작성해야 하며 3년간 재발급이 가능하다.

21.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1~3문단, 6~7문단은 다른 우편물과 달리 내용증명 제도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4~5문단은 내용증명이 갖는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2문단과 4문단에서 구체적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내용증명은 철회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나 철회 기간 내에 계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2문단). 그러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4문단).
 ②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7문단).
 ③ 내용증명은 발송 후 3년간 보관하므로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7문단).
 ④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소지한다(3문단).

2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내용증명 작성 시 기재하는 날짜는 문서 발송 날짜이다(6문단).

- [오답풀이]** ①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이 봉투 겹면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6문단). 자료에는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만 작성되어 있으므로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추가하여야 한다.
 ② 제목에는 내용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야 한다(6문단). 자료의 제목은 구체적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계약 철회 요청’과 같이 발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③ 본문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 사유와 수정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6문단). 자료는 ‘삭제’라는 수정 사유가 문자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한 글자 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 본문에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6문단). 자료는 객관적 사실관계만 드러나 있으므로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내용증명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4문단에서 내용증명이 증거의 효력을 갖는 것과 관련지어 추론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문서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므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

- [오답풀이]** ① 내용증명은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발송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분쟁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②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요구 사항을 밝히는 문서이다. 따라서 수신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내용증명은 주로 증동적 계약 체결 후 이를 취소할 때 쓰인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증동적 계약을 맺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니다.
 ⑤ 내용증명은 증거의 효력만 가질 뿐 그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는 입증하지 못한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내용증명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5분단). 따라서 을이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을의 권리가 유지된다.

[오답풀이] ①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데 이용되므로, 을이 보낸 내용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갑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면 소멸시효는 내용증명을 보낸 2020년 10월 31일에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6개월 이내인 2021년 4월 30일 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26~29] 문학(고전시가/고전수필)

<출전> (가) 김광욱, 「울리유평」 / (나) 윤희, 「육우당기」
개관: (가)는 전원생활의 여유와 풍류를 노래한 연시조로,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잊고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사촌 형이 거처하는 초가집에 '육우'라는 당명을 지어 주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 고전수필로, 글쓴이는 번치 않는 지조를 지닌 자연물인 '대, 국화, 진승, 노승, 동백, 장승'을 본받아 천진(天真)을 지키는 삶을 권유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내 몸을 내마져 있으니 남이 아니 있으라',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머리'의 설의법을 활용하여 전원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그 취미나 기상이 또한 서로 가깝지 않겠습니까', '어찌 육우라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등의 설의법을 활용하여 육우를 벗 삼아 천진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연쇄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뒤로는 감악산을 ~초마직을 한 채 엮어'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계절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 의인화된 대상인 '대 막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기

<2수>에서 화자는 욕심 없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2수>에서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잊었다고 하며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③ <5수>에서 '괄죽'과 '저리지'의 맛을 '남이 알까 하노라'라고 하여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11수>에서 '대 막대'를 '유신하고 반갑'다고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11수>에서 어릴 적에 타고 다녔던 '대 막대'를 지금은 지팡이로 쓰며 의지하고 다니는 상황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28.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이해하기

④는 욕심을 갖고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군마음 없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⑥는 '지조를 번치 않는' 대상으로 글쓴이가 예찬하는 대상이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적막한 자리'는 글쓴이가 거리를 두려는 세대의 한 단면이므로, 이것이 만족하는 삶은 진정한 한(閑)에 가까워지는 길이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사촌 형이 '육우'와 벗하며 '충분히 그 은취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

② 글쓴이는 '육우'와 사촌 형의 '취미나 기상이 서로 가까움을 들어 '육우'라고 하는 새로운 당명을 권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대의 풍조'를 비판하고 이와 대비되는 '육우'를 통해 지조와 신의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육우'의 지조를 취하여 '천진'을 지키는 삶을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보아 이를 권유하고 있다.

[30~33] 문학(현대소설)

<출전> 서유미, 「저전 사람도 아니다」

개관: 이 작품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다루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로봇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로봇에게 밀려나는 인물의 모습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3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에서 '나'는 회사에서 '그것'이 보여 준 업무 능력이 완벽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지만,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 '나'와 똑같이 생긴 로봇인 '그것'을 처음 본 '나'는 '그것'을 손님, 즉 사람으로 대해야 할지, 물건으로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② ㉡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로봇과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 특히 가족에게 들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나'는 로봇과 함께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업체 측이 전한 유의사항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③ ㉢ '나'는 '그것'이 정소, 설거지, 빨래, 요리에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 아이가 말한 '저번에 해준' 음식은 '그것'이 아이에게 해 준 것인데 아이가 '저번에 해준'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나'가 만든 음식이 예전에 '그것'이 만든 음식과 비교되고 있다.

31. [출제의도] 공간의 특성 파악하기

집 안에서 '나'는 '그것'을 통해 혼자서 육아와 집안 일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회사에서 '나'는 자신이 맡은 L그룹의 홈페이지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서 부서의 인원 감축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집 안과 회사 모두에서 '나'보다 '그것'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준다.

② 집 안에서 '나'는 '그것'에 못 미치는 자신의 가사 업무 능력을 인식하게 되어, 회사에서도 '나'는 '그것'만큼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위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④ 아이가 '나'와 있으면서 '그것'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 하며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보면 집 안에서 아이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것'이 바꾸어 버린 자신의 이미지로 인해 회사 사람들과도 예전처럼 지내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집 안에서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이해하기

[A]에서 '홍'은 기대에 못 미치는 '나'의 결과물을 보고 실망감을 드러내며 '나'를 질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B]는 '구'가 '나'의 기분을 헤아리며 위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③ [A]는 '홍'이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A]와 [B] 모두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A]와 [B] 모두는 속마음을 감춘 채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리는 모습은 집에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며 회사에 가기를 기다리는 심리이므로 로봇의 도움으로 '나'의 사회적 위치가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그것'은 '나'를 똑같이 닮은 로봇으로, 공상과학물의 상상력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부서의 인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에서 로봇 도우미 업체 담당자로부터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처지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나'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지닌 '그것'이 '나'가 맡은 작업을 대신하는 것은 '나'의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회사로 복귀한 '나'는 '홍'이 '나'가 아닌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친목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그것'이 보여 준 완벽한 이미지로 인해 '나'를 노골적으로 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무실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따라서 '나'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4~37] 문학(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육단춘전」

개관: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와 암행어사가 등장하여 탐관오리를 벌주는 이야기로 구성된 전형적인 고전소설이다. 하지만, 육단춘이 기생이지만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점과 도덕적이지 않은 사대부와 대비되는 신의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은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제시문은 이현룡이 김 감사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암행어사 출두 이후 김 감사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제시문은 이현룡, 김 감사, 육단춘 등의 대화와 여러 등장인물의 행동 묘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암행어사 출두 직후 놀란 김 감사와 수령들의 모습을 과장된 행동으로 묘사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현룡의 첫 번째 말에서 지난 사건들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⑤ '통곡하는 육단춘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라.', '그중에서 ~ 거동 가관이다.', '평양 감사 김전희의 거동이 가장 불만하니라.'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감정을

을 확인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인물들의 관계 파악하기

옥단춘은 김 감사의 관치 자리에 가면서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옥단춘은 예고 없이 관치 자리에 온 이혈룡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이 허사란다.'라고 하며 낙담을 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이혈룡이 옥단춘과 언약을 후회했다는 내용 자체를 찾을 수 없다.
② 김 감사는 이혈룡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을 짐작하지 못하였다.
③ 비장은 이혈룡을 죽은 원혼이 아닐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이혈룡을 모함하지는 않았다.
④ 김 감사는 수청을 거역하였다며 옥단춘을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뱃사공들이 이혈룡을 죽이라는 명을 거역하여 문초를 당하는 장면은 김 감사의 악행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따라서 뱃사공에 대한 문초를 악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친구인 이혈룡을 죽이려는 김 감사는 오랜 우정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사대부라고 할 수 있다.
③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혈룡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을 통해 옥단춘의 신의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④ 자신의 제물만으로도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옥단춘이 상당한 경제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혈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김 감사와 그의 무리를 벌하는 것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찾기

형방은 뱃사공이 김 감사의 명령대로 이혈룡을 죽였는지를 다그치며 문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사실 그대로 고함.'이라는 뜻의 '이실직고(以實直告)'이다.

- [오답풀이] ②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③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
④ 각골통환(刻骨痛恨):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재앙과 근심, 걱정이 오히려 복(福)이 됨.

[38~42] 독서(과학)

<출전> 차원해석(계구성)

개관: 차원을 분석해 물리적 변수의 관계나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해석에 대해 다룬 글이다. 단위와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차원해석의 개념을 밝히고, 차원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차원해석의 사례를 들어 차원해석이 지닌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38. [출제의도] 핵심 정보 이해하기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통해 차원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는 글이므로 '차원해석의 이해와 의의'가 표제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무차원화의 의미와 의의가 아니라 차원해석의 의미와 의의가 표제로 적절하다. 무차원화는 차원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일부에 해당한다.
② 무차원화의 방법들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의 글의 주제는 아니므로, 표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차원해석의 역사는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⑤ 단위와 차원의 분류가 중심 내용이 아니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 적용하기

계시문에서 변적(A)은 [길이²]이므로 차원의 동일성에 따라 수식 A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변의 각 항도 [길이²]이 되어야 한다. 즉 'A=2(B×C)+πD'을 차원으로 표현하면 '[길이²]=2[길이²]+π[길이²]'이므로, B와 C는 [길이], D는 [길이²]이어야 한다.

- [오답풀이] ① 우변이 2[길이²]+π[길이²]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우변이 2[길이⁴]+π[길이²]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
④ 우변이 2[길이²]+π[길이]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
⑤ 2와 π는 차원을 지니지 않으므로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우변이 2[길이³]+π[길이]가 되어야 2와 π의 영향으로 차원이 같아진다고 했으니 적절하지 않다.

4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그림2>를 보면 ㉔의 성장 곡선이 ㉓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 기울기는 성장 속도를 나타내므로 태어난 직후부터 ㉔의 성장이 ㉓보다 빠르다.

- [오답풀이] ① <그림1>을 통해 ㉔와 ㉓가 시간, 즉 나이(변수1)에 따라 몸무게(변수2)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② <그림1>에서 ㉔와 ㉔의 수명이 달라 몸무게의 변화 과정이 상대적인 크기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④ <그림2>에서 ㉔는 무차원 시간 't/T'가 0.2일 때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고, ㉓는 0.3일 때 성체 몸무게에 도달한다. 이것을 사람 수명을 기준으로 하면, 개는 생후 16년(0.2×80세)인 반면, 사람은 생후 24년(0.3×80세)으로,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㉔가 ㉓보다 빠르다.
⑤ <그림2> 두 축의 0에서 1 사이의 값은 몸무게(질량)와 시간(나이)을 무차원화한 값이다.

41.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B]에 따르면,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는 질량(m)과는 무관하므로,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차원해석을 하면 변수를 줄여 실험이나 작업의 양을 줄일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상수값 C보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원해석 후 실험을 통해 상수값 C를 알 수 있다.
② c는 2가 아니라 -1이므로 g를 제곱한 것이 아니다.
③ 최대 높이(h)는 속도의 제곱(v²)에 비례하므로 v와 무관하지 않다.
⑤ a=0, b=2, c=-1이 되어 a, b, c의 합이 1이 되면 우변은 [길이] 차원만 남아 좌변과 차원이 같아지므로, 좌변이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㉔ '도출'은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이란 뜻이다.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잴.'은 '계측(計測)'의 뜻이다.

[43~45] 문학(현대시)

<출전> (가) 오세영, 「열매」 /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개관: (가)는 나무의 모습을 관찰하며 바닷집한 삶의 자세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화자는 열매를 통해 원만한 삶의 자세와 자기희생적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며,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고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화자의 자기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마구 쓰다 버려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대장간에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 태어난 '무쇠'와 '호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는 ~지만', '~는 ~것을'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자연물을 소재로 사용하였지만, 그것에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았다.
② 창작적 심상이 활용되지 않았다.
④ 색채어의 대비가 활용되지 않았다.
⑤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②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는 텨보네 대장간이 사라진 자리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화자는 사라진 텨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텨보네 대장간'에서 자기 자신을 달구고, 버리고, 갈아 내는 과정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단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신의 인생을 '직지사 해우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통명처럼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꼬부랑 호미'가 '송진'을 흘리며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은 인간의 탐과 정성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거듭나려는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가치한 존재로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뿌리'의 날카로운 모습과 달리 '열매'의 모가 나지 않는 모습에서 원만한 삶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②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의 모습에서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찾을 수 있다.
③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는 인식은 둥글고 모가 나지 않는 열매를 통한 깨달음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은 무가치하고 소모품적인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